**＜12번째 이야기＞ 성령충만한 삶**

◆**대표자가 기도**

◆**나눔**

성령충만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성령충만을 받았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25

◆**말씀 알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나타나는 바람직한 삶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삶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맺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이며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요 15:4).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실함으로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기도와 말씀을 삶의 자양분으로 삼는 신앙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변함없이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와 같은 신앙으로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할 때 성령의 열매는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역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능통하여 성도를 가르치는 것,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 시간과 물질을 드려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등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열매와 함께할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역을 함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화평 안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2.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교회를 효과적으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를 발견하고 잘 개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하며 성도 개개인도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이 은사 사용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은사를 사용함으로 아무리 위대한 기적이 나타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고전 13:1∼3). 둘째로,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고전 12:7).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성령의 은사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사용되어야 합니다(고전 14:33). 성령의 은사는 탁월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절제하며 겸손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성령의 은사는 말씀에 비추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의 쓰임과 결과는 늘 성경에 부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위에 제시한 것들을 잘 유념하여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에 유익을 주고 여러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3. 거룩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벧전 1:16).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에(고전 6:19) 거룩한 삶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죄로 인해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거룩함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크나 죄의 유혹에 넘어져 좌절하고 자책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따라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라는 바울의 고백에 우리는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으나,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육신의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거룩하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룩함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참된 평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힘입어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이라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 및 중보기도**

1.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2. 성령의 은사를 통해 교회에 유익을 주고, 여러 사람에게 덕을 끼치도록 기도합시다.
3. 성령 충만하여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4. 옆 사람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상의 내용은 여의도순복음교회 구역예배공과에서 발췌, 추가, 재구성한 것입니다.